

석유 · 화학, 1/4분기 장사 잘했다!

LG화학·SK이노베이션 최대 영업실적 ... 반도체·디스플레이는 악화

2011년 1/4분기 영업실적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석유·화학기업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.

사업부문별로는 2010년 1/4분기에 23.8%에 달했던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D램 가격 하락 등으로 17.9%로 5.9%p 떨어졌고 디스플레이는 LCD(Liquid Crystal Display) 가격이 바닥을 기면서 플러스 7.2%에서 마이너스 3.5%로 10.7%p 급락했다.

디지털미디어와 가전분야의 영업이익률도 4.1%에서 0.8%로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, 스마트폰 등 휴대폰 판매량이 7000만대로 전년동기대비 9%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12.2%에서 13.5%로 조금 높아졌다.

반면, 석유·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 상승 및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LG화학은 1/4분기에 매출 5조4909억원, 영업이익 8353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다.

2010년 1/4분기에 비해 매출이 24.1%, 영업이익은 28% 증가한 것으로, 영업이익률은 14.8%에서 15.2%로 높아졌다.

국내 최대 에너지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장기간 지속된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매출 17조841억원, 영업이익 1조1933억원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. 2010년 1/4분기보다 매출이 40%, 영업이익은 195% 각각 증가한 것으로, 영업이익률도 3.3%에서 7%로 뛰었다.

S-Oil은 매출이 56.6% 늘어난 6조8188억원, 영업이익은 1018% 급증한 6467억원을 기록했으며 1.3%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이 9.5%로 치솟았다.

신·재생에너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포스코도 매출 9조1120억원, 영업이익 9210억원을 기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5/02>